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4)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 불레(Boullée): 혁명적 고전주의자

불레(Boullée)가 저술한 건축: 예술에 관한 수상(Architecture: Essai Sur L'art)은 담백한 필체와 논리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불레(Boullée)의 사상은 건축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련되어 있어서 자연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끌로드 페로(Claude Perrault) 및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 등의 사상가들과의 의견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건축은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창작인가 아니면 자연으로부터 그 근본 법칙을 유도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건축을 단순 기술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하여 불레(Boullée)는 예술로서의 건축과 석공기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론서들이 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은혜로운 예술(L'art Bienfaiteur)'인 건축을 열

\* 본명 김원식

정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건축이란 창조적 영감에 의하여 탄생하는 것인 반면 석공일은 '하나의 기계적 예술(Un Art Mécanique)'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건축은 예술을 숭고함으로 이끄는 것이며 건축을 강의하는 교수는 엄격하며 요지부동인 것 이외의 사실들을 가르쳐야 한다. 건축을 교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전통에 관한 한 볼레(Boullée)는 고전주의의 주범(柱範)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동시대의 타건축인들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고대의 대가들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마저 무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과거로부터 진화한 대상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려한다면 아무도 그를 과거에 철저히 집착하는 건축가로 연결지을 수는 없으리라. 이처럼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였던 예로서 그는 루이(Louis) 14세 시대의 두 대가로 숭앙받던 빠로(Perrault)와 블롱델(Blondel)이 각기 고대의 건축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음과 논리의 박약성으로써 진정한 건축의 본질과 문제거리를 다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구성하는 원칙에 관해 아무런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감히 비난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루브르(Louvre)의 열주랑을 설계한 빠로(Perrault)와 Saint-Denis의 문을 설계한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 사이에 일어났던 유명한 논쟁을 알고 있다. 전자는 건축이 자연에 기인하는 것을 부인하며 그것을 공상의 예술, 순수한 창조적 예술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 빠로(Perrault)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블롱델(François Blondel)은 너무도 박약한 논증을 채용함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거리들을 남겨두었다. 내가 그 논쟁을 새로이 다루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응답한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학식있는 사람들은 빠로(Perrault)의 주장을 신봉하게 되었음을 일별하게 되었다.'<sup>1)</sup>

볼레(Boullée)는 그리스의 사원들이 각자 고유한 특성(Caractère)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2)</sup>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에 관해서는 그 형태는 훌륭하나 졸렬한 감식안 때문에 추가된 장식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불평한다.<sup>3)</sup>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볼레(Boullée)의 개선문은 과거의 개선문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마도 이것은 블롱델(Blondel)의 Saint-Denis 문이나 샬그랭(Chalgrin)의 파리(Paris)의 개선문보다 더 아름답게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그의 미학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그가 때때로 대칭과 같은 디자인 요소의 장점을 찬양함을 감안

하면 가능한 일이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볼레(Boullée)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대칭은 바로 인체로부터 전해오는 자연의 대칭이다. 볼레(Boullée)는 대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칭은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고 위대한 인물(Montesquieu)이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증성,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오브제를 정신으로 하여금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한눈에 포착하게 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볼레(Boullée)는 언급된 바와 같이 수학적 법칙의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의 오브제로서의 건축물에서 최고의 미, 즉 명증성이 보장된 합리적, 형이상학적인 미와 철학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향한 관심의 결과물로서 당시의 주된 흐름을 구성하고 있던 절충주의는 볼레(Boullée)의 책 'Architecture'에서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볼레(Boullée)는 종종 그리스의 고전미학체계와 고딕의 합리적인 구조를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책에서 발견되곤 하여 일관된 이성의 건축을 향한 집념이 흐려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건축에 새로운 혁명적 사상을 불어넣으려는 볼레(Boullée)는 'Architecture'의 작은 단락에서 아주 간략한 소재목으로 그의 사상을 압축하였다. '동체(胴體)의 본질에 관하여. 그것들의 특성에 관하여. 그것들의 우리의 신체기관과의 유사성에 관하여 "De L'essence des Corps. De Leurs Propriétés. De Leur Analogie Avec Notre Organisation"<sup>5)</sup>'라는 소재목이 달린 부분에서 취급되는 내용은 바로 건축의 양태이다. 양태를 달리 말하면 외부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볼레(Boullée)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기로서의 볼레(Boullée)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몸에 가장 가까운 것들은 규칙적인 모양의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구체(球體)로서 지고한 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레(Boullée)는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형태적 위대성, 그 윤곽선의 우아

1) 'On connaît la fameuse discussion qui s'est élevée entre Perrault, l'auteur du péristyle du Louvre, et François Blondel, l'auteur de la porte Saint-Denis. Le premier niait que l'architecture tint à la nature; il la dénommait un art fantastique et de pure invention. En essayant de réfuter cette opinion de Perrault, François Blondel a employé des arguments si faibles que la question est restée à résoudre. Quand il m'est arrivé de la renouveler, je n'ai trouvé personne qui m'ait répondu d'une manière satisfaisante. J'ai entrevu au contraire que des hommes instruit embrassaient l'opinion de Perrault.' ibid. p. 51, fol. 71.

2) Boullée는 그리스 건축이 훌륭한 질서를 지닌 건축으로 모범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건축에 적합한 특성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서술하며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Leurs temples ont une similitude frappante: ils ont tous, à peu près, la même forme. 그들의 사원은 꼭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ibid. p. 161, fol. 142.

3) ibid. p. 119, fol. 110-111.

4) 'La symétrie plaît', dit un grand homme(Montesquieu). (parce qu'elle présente l'évidence et que l'âme, qui cherche sans cesse à concevoir, embrasse et saisit sans peine l'ensemble des objets qu'elle présente.) ibid. p. 64-65, fol. 79.

5) ibid. p. 62, fol. 77. 본문에서 편의상 건물의 동체로 번역한 corps는 Boullée의 문장에서 문맥에 따라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함, 그들로부터 빛나는 곳까지의 점진적 추이를 지니는 이상적인 물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구체에서만 기본형태를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규칙적인 형태에서도 발견되는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관념적 기하학을 취급하는 건축이론가가 되었다:

‘불규칙한 동체(胴體)의 무표정하고 메마른 이미지에 지쳐 나는 규칙적인 동체를 조사(調査)하는 것으로 이행하였다... 무엇 때문에 규칙적인 동체의 형태는 첫눈에 파악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형태들이 단순하기 때문이고 그 표면이 규칙적이며 반복되기 때문이다.’<sup>6)</sup>

이렇게 자신의 관심이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향하게 된 배경설명의 일환으로 불레(Boullée)는 ‘Architecture’의 도입부에서 새로운 동체의 이론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불레(Boullée)는 자기의 임무가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감각에 형태가 미치는 예술적, 미학적, 심리적인 효과를 탐구함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다:

‘나는 동체의 이론을 연구하여야 했고, 그것들을 분석하여야 했으며, 그것들의 특성들과 우리들의 감각에 대한 그것들의 힘을 인지할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sup>7)</sup>

불레(Boullée)는 특히 양계의 배치, 조명, 기념비적 차원, 그리고 건물의 특성에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 그의 이론을 많이 전개시켰고 양계를 결합하는 기술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은 전체의 효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부분적인 세부의 효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지 양계에 의하여 야기된 최초의 인상에 첨가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Etienne - Louis Boullée는 신고전주의적 건축으로써 은유적, 표현적, 그리고 상징적으로 분류되는 3가지의 특성(Caractère: 건물의 고유한 특성, 성격 등 의미함)을 확립하였다. 은유적인 성격은 혁명적인 공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공간을 설화적(Narrative)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표현적 성격은 프랑스 혁명의 가치관들을 반영하거나 거꾸로 위배함으로 구현된다. 상징적 성격은 신전과 같이 생긴 공간들을 창조함으로써 얻어지는데 프랑스 혁명기간 동안 이 방식이 반복되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 고려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레(Boullée) 및 당대의 건축가들은 위대한 건축을 재현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볼륨과 비례체계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레(Boullée)가 설명하듯이 ‘거대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은... 상질(上質)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당시에 쓰이고 있던 디자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파사드를 인간적 치수로 구성된 층을 여러 번 반복하여 구성하는 대신 횡적인 방향의 구분을 거의 없이하여 층고를 높이고 위압적인 느낌의 건물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구성은 대부분 루브르(Louvre)의 동쪽 파사드(1667)로부터 고무되고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훗날 19세기의 보자르(Beaux-Arts) 디자인의 기념비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가인 Etienne - Louis Boullée와 Claude-Nicolas Ledoux는 블롱델(Blondel)의 가르침을 따라 단순하고 무장식이며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의 매스의 구성을 가지고 건축을 혁명시켰고 장려한 공간을 만드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후 장려한 공간의 연출은 단순히 매스만의 배합과 연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축제의 즐거움과 아간의 신비성 등이 디자인 조건에 첨가되었다. 1930년대에 인공조명을 가지고 디자인하기 이전에 이미 계몽주의 건축가들은 인공조명으로써 파사드를 덮어씌울 계획을 하였던 것이다.

## 형태의 명증성 : 은유, 풍유

불레(Boullée)가 특성(Caractère)의 이론을 더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르맹 보프랑(Germain Boffrand)과 니콜라 까뮈 드 메지에르(Nicolas Le Camus de Mézières)의 저술로부터 내용을 발전시킨 불레(Boullée)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보았을 때 건물의 목적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블롱델(Blondel)의 이론을 변형시켜 건물에 고유하고 적절한 감흥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어떤 오브제를 보자!’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는 감흥이란 그 오브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방법으로부터 온다. 나는 이 오브제로부터 나오는 효과를 특성(Caractère)이라고 칭하며 그것은 우리 내부에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불레(Boullée)는 하나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

6) Fatigué de l'image muette et stérile des corps irréguliers, je suis passé à l'examen des corps réguliers... Pourquoi la figure des corps réguliers se saisit-elle au premier aspect? C'est que leurs formes sont simples, que leurs faces sont régulières et qu'elle se répètent.' ibid. p. 63, fol. 78.

7) 'Je devais faire des recherches sur la théorie des corps, les analyser, chercher à reconnaître leurs propriétés, leur puissance sur nos sens...' ibid. p. 31, fol. 48.

태의 매스가 인간의 깊은 영혼을 자극함으로써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미적인 경험을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건축적인 감각이란 일반 청중들 역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그들 역시 자신과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리라고 믿었다. 키가 큰 건물은 영감적이고 키가 작은 건물은 슬프며 수평적인 형태는 기쁨이 있다는 따위의 사실을 누구나 공히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 특성(Caractère)의 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두 가지 보충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우선, 외부의 모양은 그 건물의 용도를 보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례로 1793년 브뤼메르(Brumaire)에서 개최된 경연(Concours)에서 예술심사위원회(Jury des Arts)의 임원들이 내세운 요구조건, 즉 외부에 용도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는 불란서 혁명의 요구는 만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었던 화가 느베(Neveu)는 출판작 중 '어떠한 건물도 그 외부에 용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사계획안들을 모두 탈락시켰는데 '일단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그것들을 군수공장, 조폐국 또는 거대한 국가 농장 등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Vitruvius 또는 블롱델(Blondel) 등이 힘, 또는 우아함과 절제 또는 흥겨움 등을 정도에 따라 구분한 방법에 기인하여 Neveu가 만든 건물 유형표에 따르면 각 디자인은 그룹(Grouping)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런데 그 법칙과 패턴에 따라 어떤 특수한 유형의 건물을 이 그룹과 저 그룹으로부터 구분하는데 있어서 애매성과 어려움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일단 건물의 용도가 알려지기만 하면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을 인정하는 성격(Caractère)의 보충적 개념을 도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둘째로 볼레(Boullée)는 위에서 설명한 분류 조건에서 볼 수 있는 애매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거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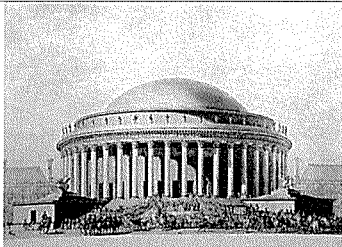
하여, 그리고 은유적 또는 풍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미학적 차원을 첨가하기 위하여 성격(Caractère)이 지니고 있는 표현적 차원을 뛰어 넘어야만 하였다. 이 조건들, 즉 은유적이나 풍유적이나 하는 조건은 그 특성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건축물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 표현적 성격을 위하여 수평적 분위기를 중시하고 길게 누운 양계를 으뜸가는 요소로 일괄적으로 채택하는 여러 종류의 공공건물들을 확연히 구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하나인 재판소가 갖추어야 할 성격에 관하여 볼레(Boullée)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재판소: 이 재판소의 장식은 위엄있고 위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위압적이고 위엄 있는) 효과는 건축에 특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요구하는 기념물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서 이것 - 이러한 위엄 있고 위압적인 성격 - 을 잘 지정할 수 있는, 그 목적에 합당하고 그 건물에 고유한 수단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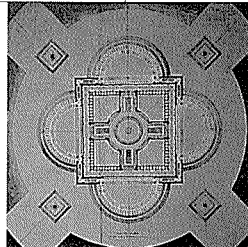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볼레(Boullée)는 공공건물을 적당한 은유와 풍유에 따라 디자인하였다. 말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상적인 건축에 있어서 각 건물은 표현적이고 아마도 은유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용도를 말하고 있다. 각 건물은 그 외관으로써 관자로 하여금 그에 적합한 느낌, 기분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처럼 표현적이고 은유적인 성격 외에 볼레(Boullée)는 건축에 제3의 성격인 상징성을 첨가시켰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의 후계자로서의 볼레(Boullée)는 공공건물을 신전과 같이 생긴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는데 반원형의 평면이 전면부에 배치된 공립도서관의 계획안은 우주에 관한 인간의 지식창고임을 상징하는 거대한 원형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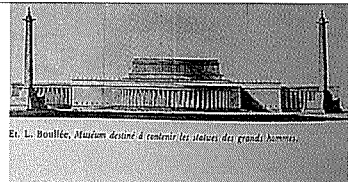
8) La décoration de ce palais doit être majestueuse et imposante. Ce tableau appartient à l'architecture. Mais comme il y a plus d'un monument qui exige un caractère à peu près semblable, j'ai cru devoir chercher à bien désigner celui-ci par des moyens convenables et qui lui fussent particuliers.



Opéra



미술관의 평면



미술관의 입면

가 계획한 법원 건물을 위한 프로젝트는 감옥 위에 법원을 둠으로써 선이 악을 이기는 풍유를 나타내고 있다. 낮고 거친 형태의 감옥은 땅으로 가라앉음으로 투옥은 영원한 죽음과 같다는 것을 은유한다. 사람들의 회합이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때, 즉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된 파리(Paris)의 시청계 획안은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상징하기 위하여 별집처럼 설계되었다.

이 건물은 커다란 개구부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수월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넓은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비슷하게 혁명정부를 위한 국민궁(Palais National)은 장식, 개구부 등이 없는 막힌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판을 따라 헌법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 왕립 도서관 계획은 라파엘로(Raphaelo)의 '아테네 학당'의 번역물이다. 여인들이 최신 의상을 뽐낼 파리(Paris)의 오페라 하우스 계획은 비너스 신전, 미술관 계획은 Parnasus 신전, 스포츠 경기장은 콜로세움, 그리고 파리(Paris)의 공동묘지는 이집트풍의 폐허를 상기시킨다.

그가 실제로 건물을 지은 일이 거의 없고 단지 귀족들을 위해 그가 설계한 몇 개의 건물만이 파리(Paris)와 그 주변에 세워졌을 뿐이다. 그는 많은 노력을 거의 건축묘사를 위한 수채화에 퍼부어서 그림 이외의 것 즉 실질적인 건축 제작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 사상을 기술한 원고들은 그의 뜻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귀속되었고 최근에야 건축 사가이자 이론가인 장 - 마리 뻬루즈 드 몽골로(Jean-Marie Pérouse de Montclos)에 의하여 비로소 출판되었다.

책의 대부분은 초보적인 이론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된다. 그는 마치 뉴턴(Newton)의 이론만큼이나 정확하고 유효한 요지부동의 건축 디자인의 법칙을 만드는 데에 진력하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그는 입체의 속성에 관하여 관심을 쏟았으며 당시 전성기에 다달아 맹위를 떨치던 로코코(Rococo) 양식의 복잡성과 불규칙한 형태를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게 받아 들였다. 로코코(Rococo)의 불규칙한 형태를 거부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그의 관심은 집중됨으로 마침내 고전적 미학개념 내에서 그가 열망하던 질서있는 형태를 만드는 3가지 조건, 즉 규칙성(Néglarité), 대칭(Symétrie), 다양성(Variét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구형(球形)은 모든 규칙적인 형태물들에서 볼 수 있는 속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구의 표면상의 모든 점은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관자

의 이동에 따른 어느 곳에서든 시각조건이 동일하므로 형태 자체의 미가 변화되지 않는 완전형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체는 다른 입체형태들과 비교하여 볼 때 관자로 하여금 가장 넓게 오브제의 표면을 볼 수 있는 형태라는 또 다른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 표면엔 단절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루며 그 윤곽은 완전히 매끄러워서 플라톤주의자들이 동경하는 가장 우미(優美)한 것이다. 한마디로 구체는 완전성의 모범이다. 그것은 단지 우주적 조화를 상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가 지닌 우미성 때문에 많은 불레(Boullée)의 계획안에 있어서 공의 모습을 한 형태는 지배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Paris)의 뜨윌리리(Tuileries)정원과 루브르(Louvre)궁 사이에 두도록 계획된 오페라(Opéra)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오페라(Opéra)를 품위 있는 취미의 사원, 그리고 파리(Paris)의 여인들의 고유한 매력을 기리는 성소인 비너스(Venus)의 사원으로 불레(Boullée)는 생각하고 건축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와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8세기의 극장들은 때때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의 극장들은 모두 벽돌과 석조의 재료를 쓰기로 계획되었고 파사드 전면에 위치한 거대한 열주랑(Peristyle)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하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페라(Opéra)를 설계한 이후 몇 년 뒤 뉴턴(Newton)을 위한 세노타프(Cénotaphe; 기념묘)를 계획하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완전 구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세노타프(Cénotaphe)는 마치 뉴턴(Newton)의 동상을 건립하듯 기념비적으로 설계되어 거대한 공간을 수용하고 있다. 건물은 어떠한 장식도 없고 다만 그 주위가 단순히 삼목과 꽃으로 둘러싸여 마치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대머리 선수가 월계관을 쓴 모양이나 띠를 두른 토성(土星)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 크기로써 방문객을 압도하여 왜소하게 위축되도록 만든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는 기단을 뚫어 만든 궁륭천장(Vault)의 지하통로를 통하여 석관 밑으로 인도되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계산된 작가의 의도에 따라 극도로 이질적인 시각적, 공간적 경험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현관을 출발하여 좁은 통로를 지나면 내부에 이르러 돌연히 펼쳐지는 광활한 공간의 폭발적인 전개가 극도의 시각적 대비감과 충격울 갖도록 의도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방문객은 내부에 도착하면 광대

한 내부 공간 안에 외로이 고립되어 있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석관을 제외하면 아무런 오브제를 찾을 수 없는 단지 광대무변한 공간과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관념의 연상이나 암시를 연출하는 기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거대한 공허함으로써 방문객을 압도하도록 계획되었다. 불레(Boullée)가 이토록 난폭한 대비를 계획한 이유는 로코코(Rococo)의 디자이너들의 관심사였던 환상적 디자인과 시각적 착각효과 등을 거부하고 엄밀하고 과학적이며 항상 불변하는 기본 기하학의 법칙으로써 표현되는, 그리고 극심한 대비에 의하여 한층 더 그 성격이 강조되는 확고한 이성의 법칙을 건축 안에 표현하려는 때문이다. 불레(Boullée)는 건축에 있어 거대한 스케일은 단순 기하학의 형태에 강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거대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스케치들마저 큰 포맷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필연적으로 모든 건물이 도서관이나 대성당만큼이나 거대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물이 위압적이거나 당당함 등을 요구하는 용도의 것이 라면, 실제로는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각적 효과와 내부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만 하여도 불레(Boullée)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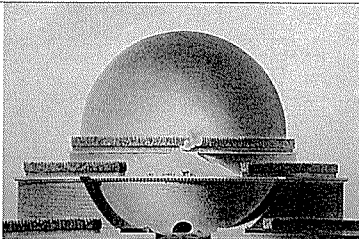
지금까지 고찰해 본 불레(Boullée)의 주장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특성(Caracère)이다. 특성(Caracère)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는 단지 이것이 진부한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실제로 권위, 힘, 특정한 느낌 등을 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표정이 풍부한 표현적인 풍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작품에 자연 환경의 묘사를 곁들이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기하학과 소위 픽취레스크(Picturesque)식 구성방법이 함께 사용되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책 마지막에 그는 이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때까지 써 온 회화적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연극적(Théâtral)인 것 그리고 건축이 요구하는 이 순수성으로부터 멀어짐을 걱정해 왔다...’<sup>9)</sup>

어찌되었든 불레(Boullée)의 작품에서는 과거 바로크나 로코코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기하학에서 나온 기본형태를 편애하며 간단한 윤곽선을 애용한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그가 당시 유행하던 이국 취향에 반기를 들고 있었으며 까를로 로돌리(Carlo Lodoli) 등의 기능주의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지 순수히 예술지향주의적 문제에 집착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을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고안하는데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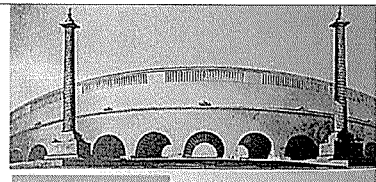
9) ‘J’avais à craindre, en employant les moyens pittoresques dont je me suis servi, d’être ce qu’on appelle théâtral et de m’écarter de cette pureté qu’exige l’architecture...’ ibid, p. 145, fol. 130.



뉴턴을 위한 기념묘



탑



Circus